

# 무능력함을 표시하는 한국인 감사화행 전략의 진실성 연구: 남녀,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여부

천재윤  
(전북대학교)

Cheon, Jae-Yun. (2020). On the veracity of Koreans' incompetency strategy in gratitude speech act: Differences in gender, age and educational statu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8(4), 103-120.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gender, age and educational status to find out the veracity of incompetency strategy in gratitude speech act. In daily life, Koreans often express incompetency in the context where their gratitude has to be expressed. It could mean that incompetency strategy is used to express continuous relationship, particular types of thoughts and value criterion in Korean culture. To prove this point, a survey by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psychologically grateful situations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and educational status in relation to the veracity of the incompetency strategy in gratitude speech act used by each group. Second, incompetency strategy in gratitude speech act was a general trend in the Korean speech community, especially in psychological situations.

**주제어(Key Words):** 감사화행(gratitude speech act), 무능력 전략(incompetency strategy), 남녀, 연령, 학력 차이 여부(differences in gender, age and educational status), 언어공동체의 보편적 흐름(a general trend in a speech commun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동일한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말은 서로간의 사회적인 결속을 만들어주며 교류 관계를 표현하고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적합한 공동체의 산물을 형성하며, 언어공동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

의 언어 구사 방식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문화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행동방식, 가치, 사고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감사화행 또한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나 담화구성원들의 특정한 사고방식, 가치기준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기존의 국내 감사화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보이는 감사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시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언어사용자의 언어태도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 즉 정신적 감사상황에서 ‘자신의 무능력함 전략’<sup>1)</sup>을 사용하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감사화행의 진실성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남녀, 연령, 학력별로 차이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결과가 사회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무능력 감사화행 전략’이 동일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언어공동체에서 보편적인 흐름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언어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방식이 비슷함을 언어문화적인 관점에서 밝히는 의미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거시 사회언어학적 면에서 언어사용자의 공통된 언어태도를 밝히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연구<sup>2)</sup>가 될 것이다.

## 2. 감사화행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의 국내 감사화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보이는 감사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었다(김정연, 1995; 김창섭, 1995; Kwon, 2000; 박은영, 2000; 송영미 & 미즈시마 히로코, 2002; 한후영, 2004; 금윤정, 2004; 김숙자, 2005; 이미순, 2006; 이정복, 2007; Lee, 2009; 천재운, 2010, 2011, 2012; 류티엔, 2017).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두 언어권에서 보이는 화행의 모습을 특정한 사회적 변인에 따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감사화행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알아보자. 김정연(1995)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 영어 원어민, 한국어 원어민 세 집단 간의 대조분석을 통해 영어 문화권에서는 감사대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 예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겸손을 표현하는 부정적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Kwon(2000)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본분 때문에 감사표현 빈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신중한 언어표현, 과목을 중요시하는 문화, 부여된 본분에 대한

1) 두 언어권인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감사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감사 전략별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한 천재운(2012: p.60)에 따르면 한국어 모국어 화자 집단은 감사상황에서 무능력 전략을 사용하나 영어 모국어 화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2)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의 국내 선구자인 안정근(2015, 2019, 2020)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화행에 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당연한 사회적 태도, 계층적 사회구조, 감사표현을 대신하는 비언어적 표현(기쁜 표정, 고개 숙임)의 발달로 들었다. 박은영(2000)은 사회적 요인인 친밀도, 사회적 지위, 나이에 따라 한국어 원어민 화자, 교포 학습자,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감사응답화행과 사과 화행에 있어 표현상의 차이 및 전략 선택의 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연구했다. 먼저 한국어 원어민 화자는 수직적 위계질서인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고, 친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포학습자는 한국어 원어민과 유사하나 친밀도의 영향이 높고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같은 변인에서는 이질집단과 동질집단을 구분하는 전략을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친밀도가 감사응답화행에서 높았으며 복합적으로 모국어 문화의 영향이 나타났다. 송영미 & 미즈시마 히로코(2002)는 일본인은 개별 상황에서 한국인보다 감사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인은 상황에 따라 사용한다고 했다. 더불어 물질적인 감사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인은 자신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다. 한후영(2004)은 일본어 모국어 화자, 한국어 모국어 화자, 일본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감사 화행의 표현 양상을 조사했다. 먼저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정형화된 인사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 경우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사과표현을 한다고 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감사표현을 할 때 감사대상에게 칭찬을 하거나 다른 보답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일본어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김숙자(2005)는 한국사회는 오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일본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사고방식으로 서양인과는 다른 감사표현에 대한 언어문화가 있다고 했다. 이정복(2007)은 사회언어학적 분포연구에서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고맙다'란 말의 쓰임이 훨씬 많지만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고맙다'란 표현이 모든 단계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했으며, 한자어 위세의 하락으로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사용 빈도가 높다고 했다. Lee(2009)는 'ssori'와 'ttaengkyu'를 한국인 화자들이 폭넓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했는데, 한국사회가 차용어인 이러한 어휘를 한국어와 혼용하거나 부호 전환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이중언어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감사화행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한 천재윤(2012)의 "영·한 감사표현에 대한 연구"는 4개의 감사상황(신체적인 감사상황, 물질적인 감사상황, 정신적인 감사상황, 형식적인 감사상황)에서 영어 모국어 화자 집단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 집단의 감사표현을 사회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에 따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두 언어 집단 간 전략별 감사표현 비교를 했는데, 특히 한국어 모국어 집단은 정신적 감사상황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감사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영어 모국어 화자집단은 무능력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진행하는 한국인의 무능력함을 표시하는 감사화행 전략의 진실성 연구를 유도하였다. 감사화행에 대한 국외연구는 본 연구가 한국인의 감사화행에 대한 연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 3. 연구방법

무능력함을 표시하는 감사화행 전략의 진실성<sup>3)</sup>을 남녀, 연령, 학력 차이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물론 감사화행의 여러 전략 중에서 무능력함을 표시하는 전략의 반응을 유도하는 설문으로 자신과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같은 경우(친구, 동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상사, 윗사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아랫사람)로 구분하여 응답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그러한 감사표현 전략 사용 시 진실성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에 표시하도록 했다. 설문은 1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했으며 대면과 비대면 방법인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서 받았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 본 연구도 지역적인 한계성, 표준화된 설문지가 아닌 점, 설문 응답자의 진실성 위배 가능성 등으로 설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행위에 대한 진실성을 알아보는 국내 화행 연구의 시발점이자 창의적인 연구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바란다.

본 연구는 위의 설문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진실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진실성의 차이를 비모수적 방법(Wilcoxon, Kruskal-Wallis)<sup>4)</sup>을 통해 검정하였다.

넷째, 차이가 유의하게 나온 변수에 대해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정규성 검정<sup>5)</sup>, 차이검정<sup>6)</sup>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설문 응답자의 무능력 감사표현 실례는 부록 2에 실는다.

- 
- 3) 언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언어연구에서 화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거나 언어성실성에 위배를 한다면 연구의 제한점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언어와 사회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도모한다면 사회언어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4) 비모수적통계검정(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은 모집단의 모수적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통계 기법에서 유용하게 쓰는 자료 분석 방법이다.
  - 5) 정규성 검정이란 관측 값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취해졌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 6) 차이검정은 단일 표본, 독립 표본, 대응 표본에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 4.1. 기술통계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94	54.7%
	여	78	45.3%
연령	10대	28	16.3%
	20대	40	23.3%
	30대	31	18.0%
	40대	54	31.4%
	50대 이상	19	11.0%
학력	고재/고졸 이하	83	48.3%
	대재/대졸 이상	89	51.7%
합계		172	100.0%

성별은 남 94명(54.7%), 여 78명(45.3%)로 나타났다. 연령은 10대 28명(16.3%), 20대 40명(23.3%), 30대 31명(18%), 40대 54명(31.4%), 50대 이상 19명(11%)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재/고졸 이하 83명(48.3%), 대재/대졸 이상 89명(51.7%)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진실성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진실성-지위 같음		진실성-지위 높음		진실성-지위 낮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76	0.88	3.53	0.95	3.53	0.85
	여	3.76	1.06	3.74	0.95	3.55	1.06
연령	10대	4.04	0.92	3.96	0.79	3.29	1.08
	20대	3.73	0.91	3.80	1.07	3.53	0.78
	30대	3.74	0.89	3.35	0.95	3.55	0.85
	40대	3.72	1.04	3.44	0.86	3.63	0.98
	50대 이상	3.53	1.02	3.74	0.99	3.68	1.16
학력	고재/고졸 이하	3.81	0.94	3.61	0.96	3.45	1.02
	대재/대졸 이상	3.71	0.98	3.64	0.94	3.63	0.88

먼저 진실성의 지위 같음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 $M=3.76$ ,  $SD=0.88$ )과 여성( $M=3.76$ ,  $SD=1.06$ )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10대( $M=4.04$ ,  $SD=0.92$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재/고졸 이하( $M=3.81$ ,  $SD=0.94$ )가 대재/대졸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실성의 지위 높음을 살펴보면 여성( $M=3.74$ )이 남성(3.5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20대, 50대 이상,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재/대졸 이상( $M=3.64$ ,  $SD=0.94$ )이 고재/고졸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실성의 지위 낮음은 성별에서 남성( $M=3.53$ ,  $SD=0.85$ ), 여성( $M=3.55$ ,  $SD=1.06$ )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 이상( $M=3.68$ ,  $SD=1.16$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30대, 20대, 10대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재/대졸 이상( $M=3.63$ ,  $SD=0.88$ )이 고재/고졸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별 진실성에 약간의 평균 차이가 보이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 및 차이검정이 필요하다.

#### 4.2. 정규성 검정

정규성 검정을 위해 사피로 윌크 검정(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다. 정규성 가정이 충족이 되면 모수적 방법으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모수적 방법으로 차이검정을 실시한다.

성별에 따른 진실성의 정규성 검정은 모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sup>7)</sup>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표 3. 성별에 따른 정규성 검정

구분	성별	통계량	자유도	p-value
진실성-지위 같음	남	.869	94	.000
	여	.872	78	.000
진실성-지위 높음	남	.893	94	.000
	여	.882	78	.000
진실성-지위 낮음	남	.845	94	.000
	여	.889	78	.000

연령에 따른 진실성의 정규성 검정은 모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7) 정규성 검정의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은 표본 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p-value가 0.05보다 클 경우 정규성이 만족되며, p-value가 작을수록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며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표 4. 연령에 따른 정규성 검정

구분	연령	통계량	자유도	p-value
진실성-지위 같음	10대	.829	28	.000
	20대	.864	40	.000
	30대	.871	31	.001
진실성-지위 같음	40대	.876	54	.000
	50대 이상	.892	19	.034
진실성-지위 높음	10대	.808	28	.000
	20대	.835	40	.000
	30대	.903	31	.008
	40대	.875	54	.000
	50대 이상	.880	19	.022
진실성-지위 낮음	10대	.857	28	.001
	20대	.829	40	.000
	30대	.849	31	.000
	40대	.882	54	.000
	50대 이상	.872	19	.016

학력에 따른 진실성의 정규성 검정은 모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표 5. 학력에 따른 정규성 검정

구분	학력	통계량	자유도	p-value
진실성-지위 같음	고제/고졸 이하	.874	83	.000
	대제/대졸 이상	.873	89	.000
진실성-지위 높음	고제/고졸 이하	.892	83	.000
	대제/대졸 이상	.885	89	.000
진실성-지위 낮음	고제/고졸 이하	.883	83	.000
	대제/대졸 이상	.862	89	.000

### 4.3. 차이검정

먼저 성별에 따른 2개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윌 콕스 검정(Wilcoxon test)를 실시하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정

구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Wilcoxon의 W	p-value
진실성-지위 낮음	남	94	85.02	7992.00	7992.000	0.650
	여	78	88.28	6886.00		
진실성-지위 같음	남	94	85.16	8005.00	8005.000	0.684
	여	78	88.12	6873.00		
진실성-지위 높음	남	94	81.74	7684.00	7684.000	0.148
	여	78	92.23	7194.00		

첫째, 성별에 따른 진실성-지위 낮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Wilcoxon  $W=7992.000$ ,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진실성-지위 같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Wilcoxon  $W=8005.000$ ,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진실성-지위 높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Wilcoxon  $W=7684.000$ ,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5개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크루스칼 윌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표 7.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정

구분		N	평균 순위	Kruskal-Wallis의 H	p-value
진실성-지위 낮음	10대	28	73.34	3.056	0.548
	20대	40	86.08		
	30대	31	87.85		
	40대	54	90.24		
	50대 이상	19	93.95		
진실성-지위 같음	10대	28	99.63	3.245	0.518
	20대	40	84.93		
	30대	31	85.15		
	40대	54	85.45		
	50대 이상	19	75.66		
진실성-지위 높음	10대	28	102.05	10.895	0.028
	20대	40	98.20		
	30대	31	73.03		
	40대	54	75.85		
	50대 이상	19	91.18		



첫째, 연령에 따른 진실성-지위 낮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Kruskal-Wallis H=3.056,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진실성-지위 같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Kruskal-Wallis H=3.245,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에 따른 진실성-지위 높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Kruskal-Wallis H=10.895,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검증하기 위해 본페로니 교정방법(Bonferroni Correc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유의수준을 비교회수만큼 나누어  $\alpha=0.005(0.05/10)$ 로 진행하며, 윌콕슨 검정(Wilcoxon test)을 실시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진실성-지위 높음을 다중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0.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진실성 지위 높음 다중비교

진실성-지위 높음	Wilcoxon의 W	p-value
10대 vs 20대	1362.5	0.817
10대 vs 30대	781.5	0.017
10대 vs 40대	2003.5	0.014
10대 vs 50대 이상	424.0	0.464
20대 vs 30대	937.5	0.029
20대 vs 40대	2285.0	0.024
20대 vs 50대 이상	543.0	0.644
30대 vs 40대	1302.5	0.768
30대 vs 50대 이상	730.5	0.208
40대 vs 50대 이상	1910.0	0.243

다음은 학력에 따른 2개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윌 콕슨 검정(Wilcox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력에 따른 2개 집단 간 진실성 차이검정

구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Wilcoxon의 W	p-value	
진실성-지위 낮음	고재/고졸 이하	83	88.54	8349.0	7529.0	0.585
	대재/대졸 이상	89	84.60	7529.0		
진실성-지위 같음	고재/고졸 이하	83	85.58	7103.5	7103.5	0.806
	대재/대졸 이상	89	87.35	7774.5		
진실성-지위 높음	고재/고졸 이하	83	81.96	6802.50	6802.5	0.220
	대재/대졸 이상	89	90.74	8075.5		

첫째, 학력에 따른 진실성-지위 낮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Wilcoxon  $W=7529.0$ ,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에 따른 진실성-지위 같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Wilcoxon  $W=7103.5$ ,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에 따른 진실성-지위 높음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Wilcoxon  $W=6802.5$ ,  $p>0.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논의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나 특정한 사고유형, 가치기준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화행을 한다. 특히 올바른 감사화행은 원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기존의 감사화행에 대한 연구는 두 언어권의 비교연구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일한 언어 문화권내에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정신적 감사상황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표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진실성에 있어 남녀, 연령,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먼저 설문을 토대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했다.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정규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진실성의 정규성 검정은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정규분포를 따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진실성의 정규성 검정은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에 따른 진실성의 정규성 검정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05하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 차이검정을 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2개 집단의 차이를 비모수적 통계검정 방법인 윌콕슨 검정(Wilcoxon 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진실성 지위 낮음, 지위 같음, 지위 높음에 유의수준 0.05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5개 집단의 차이에서 진실성 지위 높음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0.005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른 윌콕슨 검정(Wilcoxon test)에서는 진실성 지위 낮음, 지위 같음, 지위 높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정신적 감사상황에서 감사화행을 드러낼 때 '자신의 무능력함 전략'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진실성이 남녀, 연령, 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한국어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사하는 '무능력

감사화행 전략이 동일 언어 문화권에서 언어공동체의 보편적 흐름임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거시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언어 태도에 대해 감사화행뿐만 아니라 칭찬, 불평, 사과와 같은 국내 다른 화행 연구에서도 화자의 언어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진실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더불어 그간의 화행 연구가 표면적인 언어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본고를 통해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숙자. (2005). 한·일 양언어의 감사표현 비교. *한국언어문화학*, 2(1), 17-32.
- 김정연. (1995). 영한 화행 대조 분석: 감사와 그 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섭. (1995). 영·한 화행대조분석: Gratitude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윤정. (2004). 감사표현에 관한 한일 대조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티엔. (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감사화행 연구: 한·중 감사화행의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0).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원어민의 화행실현 비교연구: '사과'와 '감사응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미, 미즈시마 히로코. (2002). 한국과 일본의 감사표현 비교연구. *이중언어학*, 20, 175-191.
- 안정근. (2015). 한국인의 거절화행 전략: 나이와 남녀차이. *언어학*, 23(1), 139-160.
- 안정근. (2019). 한국인의 불평 화행 연구. *언어학*, 27(3), 1-22.
- 안정근. (2020). 서비스 상황에서 한국인의 발화 개시 양상. *언어학*, 28(1), 1-15.
- 이미순. (2006). 영어와 한국어 감사화행의 성별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 (2007).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사회언어학적 분포. *사회언어학*, 15(1), 151-173.
- 천재윤. (2011). 영어 모국어 화자의 'thank you'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호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집*, 14, 119-141.
- 천재윤. (2012). 영·한 감사표현에 관한 연구 - 감사상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재윤, 문영수. (2010). '한국어 고맙습니다' 화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학*, 18(2), 135-161.

- 한후영. (200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감사 화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Kwon, S. (2000). The frequency of saying thank-you in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8(1), 325-360.
- Lee, J. (2009).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Ttaengkyu* 'thank you' and *Ssori* 'sorry' used in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7(1), 211-236.

## 부록 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한국인들이 정신적 감사상황에서 감사표현에 대한 반응으로 '무능력함을 표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 언어표현의 진실성 정도에 대해 남녀,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사회문화구조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 타인에게 칭찬을 받을 때 정신적 감사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족합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와 같은 표현 등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 등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시고, 그 표현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재/고졸 이하    ② 대재/대졸 이상

II. 다음은 대화상황입니다. 빈칸에 하고 싶은 말을 기입해주세요. 한 문장이상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입해주신 문장의 진실성 정도(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가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자신과 사회적 지위가 같은 경우(친구, 동료 등)  
친구, 동료: 너는 뭐든지 잘 하는구나.  
당신: \_\_\_\_\_.  
진실성 정도(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2.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상사, 윗사람: 너는 뭐든지 잘 하는구나.  
당신: \_\_\_\_\_.  
진실성 정도(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3.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아랫사람: 무엇이든지 잘 하시네요?  
당신: \_\_\_\_\_.  
진실성 정도(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 부록 2.

설문 응답자의 무능력함을 표현하는 감사표현 실례

사회적 지위가 같은 경우

10대	<p>니가 더 잘해. 아닌데. 그럴 리 없어. 아니 뵈.</p>
20대	<p>에이 아니야. 너가 더 잘하지. 뭘 소리여.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운이 좋았지. 그 정도는 아닌데. 부끄럽네.</p>
30대	<p>조금 할 줄 알아. 에이 아니야. 별 말씀올. 설마 그럴 리가. 못하는 게 더 많아. 부족합니다. 아니야.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냐.</p>
40대	<p>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못하는 것도 많아요. 아냐.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하지. 이것만 잘 하는 거지. 아니야, 나 못해.</p>
50대	<p>좀 부족하지. 아니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려고는 하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p>

##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10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닙니다.
20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별로 못합니다.
30대	별 말씀요. 좋게 봐주셔서 그래요. 과찬이십니다. 하다보니까요. 선배님 닮아 그렇지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40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50대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별 말씀요. 과찬입니다. 잘하긴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배우는 자세로 임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10대	아니야. 니가 더 잘혀. 별거 아냐.
20대	에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에이 뭘요 아님. 아냐.
30대	뭐 이정도로. 아이 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은 하지. 별말씀을. 덕분이지. 남들 하는 정도지.
40대	별 말씀어요. 아니야. 말만이라도 고맙다. 에이 아직 부족해요. 별거 아니야. 많이 부족해. 잘못해.
50대	너도 나보다 잘하는 거 더 많아. 그건 아니야. 뭘 이정도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하던 거라 그렇지. 덕분이지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천재윤**

54947 전주시 완산구 은고을로 119, 106/203

전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사

이메일: mysharpcheon@daum.net

Received on September 27,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8, 2020

Accepted on December 24, 2020